

기호이데올로기*

－ 문화적 번역 사례를 통해 본 인류학과 기호학의 교차점

고경난**

【 차 례 】

- I. 서론
- II. 기호이데올로기의 개념화
- III. 문화와 대상 기호 간 역동성
- IV. 담론적 매개와 문화적 세미오시스
 1. 메타기호학적 담론의 매개
 2. 기호 전환으로서의 번역
- V.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기호이데올로기 개념을 소개하고 “지속가능성” 담론의 문화적 번역 사례를 통해 기호이데올로기 개념이 어떻게 인류학과 기호학의 교차점과 생산적 교류를 드러내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최근 언어/기호/문화인류학 연구에서 등장하고 있는 기호이데올로기는 언어이데올로기 개념과 맞닿아 있다. 언어이데올로기는 언어 사용자가 언어와 언어사용에 관해 지니는 관념과 믿음, 그리고 유사하게 현재 기호이데올로기는 기호 사용자가 갖는 기호와 기호사용에 대한 관념과 믿음으로 설명된다. 본 논문은 기호이데올로기의 등장을 언어인류학자 실버스틴의 언어이데올로기 개념화에서 찾고, 민족지적 조사를 통해 수집된 하와이에서의 지속가능성 담론의 문화적 전환(transduction) 사례를 사용, 의미가 지표성을 해석하는 기호이데올로기의 매개로 인해 편향성을 가질 수 있음을 밝힌다. 기호이데올로기는 기호를 둘러싼 담론의 메타기

* 이 연구는 2016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HK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HK부교수

호학적 구성에 함의돼 의미를 매개할 수 있고, 따라서 기호 층위와 담론 순환의 사회적 층위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기호와 대상적 의미의 사회문화적 구성, 즉 사회 층위의 문화적 세미오시스(cultural semiosis)를 분석하는 사례를 제공, 본 논의는 기호이데올로기가 기호학과 인류학 융합의 생산성을 보여줄 지점임을 보이고 더 나아가 퍼스 기호학이 인지와 정신의 탐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 그리고 문화의 폭넓은 경험적 분석에 개념적 도구와 방법론적 틀을 제공함을 드러낸다.

열쇳어 : 기호이데올로기, 기호인류학, 문화적 세미오시스, 의미 전환, 지표성

I.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21세기 인류학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기호이데올로기(semiotic ideology)” 개념을 소개하고 인류학적 현지조사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고찰해 보는 데 있다. 기호이데올로기 혹은 기호학적 이데올로기는 언어인류학과 인근 학문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데올로기(language ideology) 개념과 맞닿아 있다. 언어이데올로기는 쉽게 언어 사용자가 언어와 언어사용에 관해 지니는 관념과 믿음으로 설명되고, 기호이데올로기는 유사하게 기호 사용자가 갖는 기호와 기호사용에 관한 관념과 믿음으로 현재 이해되고 있다(Keane 2003). 본 논문은 인류학 연구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호이데올로기가 기호학적 그리고 인류학적 연구에서 갖는 함의와 유용성을 기호의 문화적 번역에 관한 민족지적(ethnographic) 관찰 자료를 통해 논의해 보려 한다.

인류학에서 기호이데올로기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말 즈음 찰스 샌더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의 기호학 이론이 미국 인류학자, 특히 언어인류학자 사이에서 자료 분석에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문화를 이론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인류학에서는 이미 20세기 중반 이후 문화가 단일한 총체이며, 불변하거나 공유

되는 성격의 것이라는 일반적 전제가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인류학적 탐구의 관심은 문화의 공유성보다 학습적 또는 전파적 성격으로 옮겨갔고,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서도 불변적이거나 정태적인 지역성보다 문화적 과정에 더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조와 맞물려 “문화” 대신 “문화과정(cultural process)”이라는 개념적 용어의 사용이 빈번해지는 추세였고, 그 중 소위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려는 문화/언어인류학적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 현재 점차 확산되고 있는 퍼스 기호학의 접목이라 하겠다. 퍼스 기호학 이론과 방법론을 응용하는 인류학 연구에서 기호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은 어쩌면 민족지적 자료의 해석과 분석에 필수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기호학과 인류학의 다른 점은 인류학 연구의 해석과 분석은 그것이 기호와 기호사용에 관한 것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 인간사회와 문화 간 관계에 대한 이해를 지향한다. 그래서 민족지적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현지인의 기호와 의미의 생성과 유통을 사회와 문화 차원과 연결지어 설명할 것이 인류학자에게 성찰적으로, 학계 내부적으로, 또는 타 학문 간 교류에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제 기호이데올로기 용어가 기호인류학(semiotic anthropology) 연구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이 개념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자가 기호이데올로기 개념에 관심을 두는 또 한가지의 이유는 인류학 문헌에 등장하는 기호이데올로기라는 용어와 개념이 기호학과 인류학 분야의 교차점과 차이점, 그리고 두 학문의 결합이 가지는 장점이 무엇인지 보여줄 지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논의의 전개를 위해 연구자는 미국 하와이 주(州)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이 년 동안 수집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현지화에 대한 현지조사 자료를 사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는 연

구자가 담론 언어의 대체와 기호학적 의미 변형을 담론의 재맥락화로 분석한 민족지적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것을 일부 포함한다(Koh 2015a). 특히 이 연구는 언어자료 외에 추가적인 비언어적 영상 자료를 사용하고, 무엇보다 기존 인류학적 접근에서는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의미 관계와 생성의 사회문화적 기반에 집중한다. 즉 기호이데올로기 개념에 비추어 본 기호의 사회 관계적 성격 또는 사회 차원에서의 문화적 세미오시스(cultural semiosis)를 퍼스 기호학과 기호인류학의 융합의 관점에서 탐구해 본다. 이 논의를 통해 연구자는 경험적 문화 분석에서 퍼스 기호학의 응용과 생산성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퍼스 기호학 이론은 인지와 정신의 탐구 이외에, 인간과 사회, 그리고 문화의 경험적 분석에 유용한 분석적 도구와 방법론적 틀을 제공함을 보이려 한다.

II. 기호이데올로기의 개념화

인류학 연구 중 퍼스 기호학을 경험적 분석에 적용하는 연구를 흔히 기호학적 인류학 또는 줄여서 기호인류학 연구라 부른다. 기호인류학을 인류학의 하위 학문 분야 명칭으로 제안한 학자는 시카고 대학교의 밀튼 싱어(Milton Singer)로 알려져 있다. 싱어는 퍼스 기호학이 인류학자에게 의미와 맥락 간 관계를 풀이하는 데 좋은 방법론을 제공한다고 생각해 기호인류학이라는 명칭과 이론적 관점 및 접근법을 택할 것을 주장했다(Singer 1978). 그는 소쉬르의 기호론보다 퍼스 기호학이 상징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기호와 사회라는 기호사용의 맥락 간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한다고 보고, 당시 인류학계 내 지배적이던 구조주의적 문화접근에 기반을 둔 상징인류학(symbolic anthropology)과의 구별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싱어의 주장이 인류학에서 곧 수용되어 확산된 것은 아니고 또 기호인류학이 싱어의 연구로부터 출발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

다. 여러 언어인류학자들이 1980년대 전후, 워프(Whorf), 사피어(Sapir), 비고츠키(Vygotsky), 바흐친(Bakhtin) 등의 이론을 인류학 관점에서 재 해석하며 언어와 사회·문화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접목하기 시작했다. 싱어는 이러한 움직임 속에 퍼스 기호학에 기반을 둔 기호인류학이라는 새 명칭을 제안하였다.

경험적 연구를 기반으로 퍼스 기호학을 응용한 인류학의 발전에 주된 역할을 한 것은 시카고 대학교의 마이클 실버스틴(Michael Silverstein)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전환사, 언어적 범주, 그리고 문화적 기술”(Silverstein 1976)이라는 초기 대표논문에서 야콥슨(Jakobson 1957)을 따라 야콥슨이 “이중적 기호(duplex signs)”라고 부른 지시적 지표(referential index)를 발화 상황에 따라 바뀌는 전환사(shifter)라 하고, 지시적 지표가 사용되고 화용론적 의미를 생산하게 되는 일반 규칙을 비지시적 지표(nonreferential index)와 대비시켰다. 여기서 그는 도상, 지표, 상징 개념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더 나아가 언어적 지표가 발화 상황에 따라 전제적(presupposing) 그리고 수행적(performative) 기능을 할 수 있음을 밝혔다(Silverstein 1976). 언어인류학, 특히 기호학적 문화/언어인류학의 발전에 실버스틴이 기여한 바를 모두 논하기는 어려우나(cf. Parmentier and Urban 2018) 본 연구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은 그가 퍼스의 이론을 접목하여 언어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을 확립했으며 그 결과 기호이데올로기 개념 또한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실버스틴은 “이데올로기의 사용과 유용성”(1998)에서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허구적 의미 또는 뉘앙스를 함의하는 것으로 접근되는 경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타 인문·사회과학 문헌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시 많은 인류학 연구는 이데올로기 개념을 특정 정치적 맥락과 권력적 사회관계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만 다루고 있었다. 또, 더 나아가 특정 체계(‘system’) 내 계급이나 집단이 갖는 독특하고 편향된 하나의 아이디어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cf.

Williams 1983). 실버스틴은 이와 같은 사회 사상적 관점에 한정된 이데올로기 개념 사용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만 경험적으로 다뤄질 수 없는 그 어떤 진리(“Truth”)와 타당성(“Validity”)을 전제한다고 했고, 더 나아가 이데올로기의 실체를 특정 집단에 공통된, 즉 정신적으로 공유된 그 무엇으로만 축소한다고 보았다(ibid.).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런 관점은 그것이 정신과 관련된 그 어떤 현상이라도 물질성과 역사성을 동시에 지니는 것이라는 시각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데올로기’의 경험적 실재와 기호과정적 성격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실버스틴은 “실제적(realities)”으로 유의미한 사회적 실천은 “여러 지표적 기호과정의 경험(the experience of indexical semiotic processes)”에서 나오는 것이며 “유의미성이란 사회적 [차원의] 기호학에서 [생산되는] 변증법적 자산 혹은 속성(meaningfulness is a dialectic property of social semiotics)”임을 강조했다(ibid., 314). 또 언어의 다양한 지표적 관계는 사회적이고 담론적이며 대화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되고, 또 재결정되는데,¹⁾ 이 작용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역설적이게도(ironic concept of)” 이데올로기임을 이야기했다(ibid.). 다시 말해 한 언어, 또는 한 단어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결정하려면 그 단어가 언제 어떻게 사용된다는 전제나 함의를 실은 메타화용론적(metapragmatic, 언어사용에 관한) 담론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예: “그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야”), 사용자는 이 사회 층위에서 순환하는 메타화용론적 담론의 매개 덕분에 단어의 의미적 대상에 접근하거나 단서라도 획득할 수 있다.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다양한 메타화용론적 담론이 기호와 사회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바로 이 메타화용론적 기능을 구성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지표성을 해석한다”고 했다(ibid., 315).²⁾

1) 이 담론과 기호 간 관계는 변증법적으로 지속되는 것이어서 지표성의 질서(orders of indexicality)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게 된다(“nth”, “n+1st”차 지표관계).

2) 인용된 원문을 각주로 제공하면 “Ideology construes indexicality”이다.

이처럼 실버스틴은 퍼스의 기호 이론을 적용해 사회와 언어 간 언어적 세미오시스, 언어기호의 지표성, 그리고 언어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설명했고, 이 논문은 향후 지표성에 대한 인류학적 탐구의 시금석이 됐다고 평가된다(Nakassis 2018). 이후 중요한 편저 『언어이데올로기: 실천과 이론』(Schieffelin, Woolard, and Kroskrity 1998)이 출판됐고, 지금까지 수많은 언어이데올로기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출판되고 있다(cf. Woolard and Schieffelin 1994; 강윤희 2004; 최진숙 2016).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이제 인류학 연구에서는 언어이데올로기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언어와 언어사용에 대한 관념과 믿음으로 정의하고 사용하고 있다. 기호이데올로기 개념은 이제 21세기 전후 등장하기 시작했고 현재 혹은 아직까지는 언어이데올로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갖는 기호와 기호사용에 대한 관념과 믿음으로 다뤄지고 있다. 사실 기호이데올로기보다 언어이데올로기가 먼저 인류학에 자리를 잡은 것은 언어인류학이 미국 인류학의 전통적인 사대(四大) 하위분야 중 하나이고 또 실버스틴의 경험적 대상이 언어와 언어구조에서 출발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호이데올로기의 용어를 자연스럽게 거론하기 시작한 건 실버스틴의 후학들로, 파멘티어(1994, 142)는 그것을 “문화적으로 결정되고 역사에 근거한 언어적 그리고 시각적 의사소통에 대한 일군의 해석적 기준들”로 해석체 개념을 사용해 설명한 바 있다. 킨(Keane 2003, 419)은 “기호가 무엇이고 어떻게 세상에서 기능하는가에 관한 기본적인 전제들”이자 기호뿐 아니라 행위자적 주체와 함의적 대상까지의 “재현적 경제(representational economy)”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제 기호이데올로기 개념이 언어/기호인류학 연구에서 조금 더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고, 특히 종교, 예술, 브랜드 등과 같은 비언어적 기호를 주로 다룬 민족지적 연구에서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는 추세이다(Koh 2015b; Janowitz 2018). 최근 킨(Keane 2018)은 그의 이전 논의를 보다 심층적으로 발전시킨 논문을 발표해 기호이데올로기를 사람들이 지니는 기호학적 사실주의(semiotic realism)라 설명하고 결

국 가추법(abduction)적으로 생산되는 평가와 가치라 하였다.

메타화용론적 담론을 구성하고 언어와 의미 간 지표적 관계를 다시 구성 및 해석하는 언어이데올로기와 같이 기호이데올로기는 메타기호학적 담론 혹은 구성에 함의되어 기호의 의미작용을 매개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성격과 역할, 그리고 기호작용의 문화적 구성을 잘 드러내는 문화적 번역의 사례를 살펴보고 기호이데올로기와 기호 간 역동성을 탐구해 본다.

III. 문화와 대상 기호 간 역동성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용어는 이제 한국사회의 공공담론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미국 사회에서는 대략 십 년 전부터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뉴스매체를 통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었는데, 이 지속가능성 담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담론과 결부해 급속한 경제성장과 생산에만 집중해 온 20세기 자본주의 방식의 맹점을 전지구적 차원에서 성찰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이 개념은 경제, 사회문화, 환경이라는 세 가지 거대 영역이 유기적이고 총체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속가능성 담론에서는 “생태계(ecology),” “경제(economy),” “사회 가치(social equity)”의 세 영역을 구분해 그 영역 간 상호관계와 배려를 강조하고, 이를 지구와 인간 공동체의 영속을 위한 세 가지 기본 토대(triple bottom line, TBL)라 한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다수 인문·사회과학 연구는 대체로 이 개념을 시대 당면적인 것으로, 또한 보편 윤리적인 당연한 것으로 다루어 왔다. 이 중 문화인류학적 연구는 지속가능성이 어떤 양상으로 추진되었으며, 또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도 주목해 왔다. 이 연구들은 지속가능성 담론이 기업, 정부 기관, 시민사회 단체, 다국적 기관 등을 포함하는 기관주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Welker 2009;

Coumans 2011; Rajak 2011), 또 산업, 공급 사슬(supply chain),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의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갈등과 변화를 강요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한다(Kirsch 2010; Partridge 2011). 지속가능성이라는 공적 담론의 실천에 관한 규범적 평가와는 별개로 그것의 확산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문화적 갈등과 경제적 이해관계 문제가 여러 사회에서 민족지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의는 이런 현상을 기호의 해석을 둘러싼 기호이데올로기 차원의 갈등, 더 자세하게는 기호의 의미와 사용을 규제하는 이데올로기를 담은 메타기호학적 담론의 문제로 풀이한다.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수행한 미국 하와이주 섬에서 지속가능성 담론은 처음 엘리트 담론으로 인식되어 회자되기 시작했다. 연구자는 하와이안 랜즈(Hawaiian Lands Company, Inc., 가명) 주식회사와 섬 내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인 하와이대학 분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지속가능성 교육연구소(Sustainability Education Institute, 가명)에서 2006~2008, 2년간 민족지적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그리고 이 기관들에서 본격적으로 현지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 개월간 지역주민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화적 이해에 대한 사전 조사를 수행했다. 그런데 이 사전 조사 기간 동안 알게 된 것은 현지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생각이 연구자나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진행할 기관에 속한 정보제공자의 생각과 매우 다르다는 점이었다.

조사 당시 현지주민이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는 경로는 주 정부 기관, 기업, 대학, 또는 잘 알려진 지역 시민단체의 여러 활동을 전달하는 신문, 방송, 라디오의 뉴스매체였다. 하지만 이러한 매체들 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현지인이 “코코넛 와이파이(coconut wireless)”라고 부르는 입소문을 통해서였다. 현지 조사 당시 현지주민들은 뉴스 매체를 통해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등장하는 맥락은 주로 주요 주정부 인사의 연설, 하와이안 랜즈를 포함한 몇 개 기업 CEO의 신사업 계획, 또는 대학과 지역사회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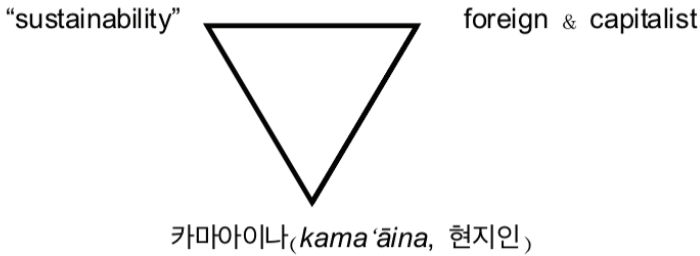
체의 지역 내 새로운 활동들이었다. 지속가능성 담론은 뭔가 지금과는 다른, 새롭고 중요한 변화가 진행 중이거나 미래에 계획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코코넛 와이파이에에서의 지속가능성 담론은 그 계획들이 현지인에게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준다는 데에만 초점을 두었다.

연구자는 현지주민과의 대화와 인터뷰에서 그들이 이러한 여러 주요 기관·단체 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상의하달식(top-down)으로 진행되는 데 불안과 불만을 품고 있음을 자주 느꼈다. 거의 모든 주민과의 인터뷰와 대화에서 “지속가능성” 단어가 등장하면 즉시 대화가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으로 전환되고, 또 대화 주제 자체가 특정 기업(예: 하와이안 렌즈 기업)과 같은 지속가능성 사업이나 운동을 추진 중인 주체에게로 옮겨가는 경향이 관찰됐다.

의미 관계를 풀이하자면 일차적으로 현지주민의 일상 담론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기호는 대화 참여자와 대립되는 무엇 또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떠올리도록 한다. 주요 주정부 인사의 공공연설, 전시와 공연 등의 문화행사, 지역행사장 등, 하와이 공공영역 담론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현지인(*kama āina*, 카마아이나³⁾) 대 비현지인’의 이분법적 구도이다. 개인 아이덴티티에 관한 하와이 특수적인 이분법적 대립 구도는 역사적으로 하와이의 미국 합병 이전, ‘하와이 왕국 대 미국’이라는 대립 상황으로부터 기인한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 하와이의 주 산업이 관광업으로 자리 잡고, 현지인에게 외지인(外地人)의 출입과 그들과의 접촉이 일상적인 것이 되면서 이러한 이분법적 대립 구도는 계속해서 활발히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현지주민에게 지속가능성은 그들이 아닌 비현지인의 것으로 이야기 또 인식되고 있었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지속가능성을 처음 언급하기 시작한 사람이 기관 주체였고, 그 주

3) 현지인을 의미하는 하와이 용어 카마아이나(*kama āina*)는 사전적으로 ‘하와이에서 나고 자란 사람’을 의미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조금 더 넓게 하와이에 거주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또 강하게는 백인을 의미할 수 있다.

체들은 또 주로 백인 엘리트였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은 지속가능성을 정부, 대학, 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요 직책을 맡는 주로 백인인 엘리트의 움직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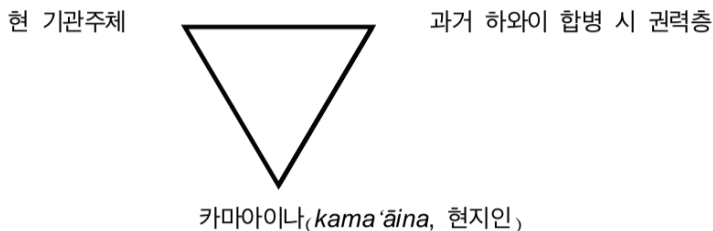


[그림 1] 지표의 문화적 해석 양상

퍼스의 기호 개념으로 지속가능성의 일차적이자 문화적 편향성을 떠는 기호작용을 도식화하자면 그림1과 같다. 여기서 기호는 외지인과 자본가 등 실제 존재하는 사회 주체를 시공간적으로 가리키는 지표로 작용한다. 시공간적 인접성이 기호 양식의 기반(ground)인 근거는 앞서 현지인과의 대화에서 언급했듯, ‘누가 무엇을 하려 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뉴스와 입소문이 비전문가인 대다수 현지인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주된 정보획득 방식이기 때문이다. 전지구적 레벨에서 쓰인 글, 즉 문서에 담겨 순환하는 지속가능성 담론과는 달리 현지 미시적 상호작용에서 지속가능성은 현지인의 국지적 상황과 지표적으로 결합해 담론화되고 있었다. 하나의 언어기호의 해석에 또 다른 층위, 즉 해석의 맥락 또는 담론 순환의 상황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메타기호학(metasemiotc)적 층위로서의 담론 층위가 이데올로기적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카마아이나 또는 현지인의 기호해석과 의미생성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성은 현지 담론에서 단지 (일차적으로) 외지인,

자본가, 행정가 등 사회기관 주체와 연관된 무엇일 뿐 아니라 이차적 기호작용으로 비대칭적 권력 관계의 의미를 이끌어냈다(entailment).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현지 엘리트가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특정 피부색의 엘리트, 즉 백인 엘리트가 주도하고 회자하는 이야기로도 평가됐다. 실제로 현지조사 당시 하와이의 주지사는 유대인계 이주민으로 엄격한 의미의 ‘나고 자란(born and raised)’ 카마아이나가 아니었고, 하와이 대학 내 지속가능성 교육연구소를 이끈 부총장은 일본계 카마아이나였으나 교육연구소와 파트너 협력관계였던 하와이안 랜즈 회사의 CEO는 “본토(mainland)”에서 활동 후 귀향한 백인 경영자이자 자선가였다. 현지주민은 그들 자신이 순수혈통의 원주민(native) 하와이 사람이거나 나고 자란 카마아이나이든, 또는 이주민이든, 현재 그들의 정체성과 지역 소속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현지인 대 비현지인의 이분법적 담론을 선호하고 다양한 기호사용을 통해 재생산한다(예: 전통적 하와이 문양 스티커, 문신, 상징적 피진어의 사용 등). ‘현지인 대 비현지인’의 구분은 ‘하와이 왕국 대 미국’이라는 역사적 대립 구도와 자연스럽게 결합하고, 다시 ‘카마아이나 대 하올리(haole)’라는 지역 주민의 출생적이고 인종적인 속성에 관한 이분법적 대립구조를 생성할 수 있다. 하와이 피진에서 하올리의 사전적 의미는 하와이 토박이가 아닌 외지인, 즉 카마아이나와 대립되는 것이지만 실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는 백인을 지시한다.



[그림 2] 지표의 도상적 해석

그림2는 이러한 문화적 세미오시스에 존재하는 이차적인 도상적 의미 관계 생성을 요약한다. 이 과정은 기호인류학자 파멘티어(Parmentier)가 지표 성격의 기호가 도상으로 해석되는 문화적으로 특수한 경향을 설명하며 “하향전환(downshifting)”의 경우라고 한 것과 동일한 과정이다 (1994, 18).⁴⁾ 지속가능성을 주도하는 기관 주체는 현지인 담론에서 과거 하와이의 미국 합병 시 엘리트 계층이었던 백인 권력층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사람들처럼 일상담론에서 다뤄지고 있었다. 이 도상 관계의 형성이 수월한 이유는 어쩌면 당시 뉴스거리였던 지속가능성 활동과 사업이 기존의 것을 지속가능성이라는 명목하에 재개발(예: 부동산), 재건축(예: 호텔), 또는 탈바꿈(예: 농경지와 농업방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기존 부지의 변화와 재개발, 그리고 소위 지속가능한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한 재건축 등은 현지주민의 일상에 크고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직접 이 사업과 연관된 이들에게는 그들의 현 직장 과 거주지 문제였기 때문이다. 추진 중이던 이 계획들은 그들이 주문을 한 것도 주도를 한 것도 아니었고, 현지사회 특권층으로부터 상의하달식으로 시작된 것이었으며 따라서 현지인이 가진 현재 무언가를 앗아가는 것일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 주민에게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기관 주체는 마치 과거 하와이의 미국 합병 이전 하와이 왕국에서 미국 본토로의 흡수를 추진하며 토착문화를 지워버린 백인 권력자와 쉽게 동일시 될 수 있었다. 정보제공자 자넷(Janet, 가명)의 말을 인용하자면 지속가능성을 추진하는 단체의 사람들은 백년 전 하와이 권력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4) 파멘티어의 하향전환을 원어로 가져오면 “the tendency of certain of the classes to be systematically apperceived by their interpretants as being lower-ranking signs”이다. 이와 반대로 상향전환(upshifting)은 예로 도상이 지표나 상징으로, 또는 지표가 상징으로 읽히는 해석체의 방향성을 말한다.

IV. 담론적 매개와 문화적 세미오시스

1. 메타기호학적 담론의 매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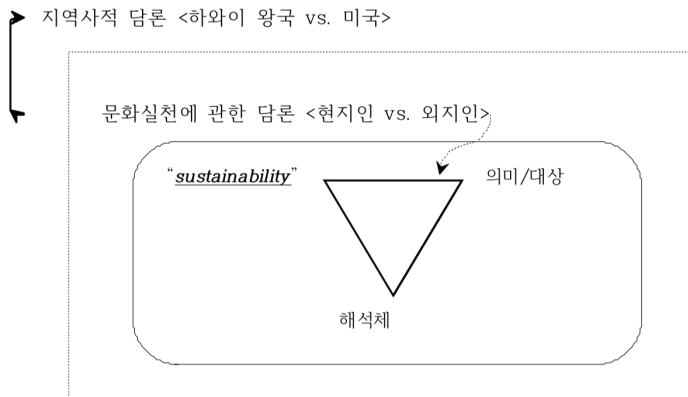
앞 장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현지인에게 지속가능성이라는 언어토론은 주변 사건이나 상황과 연결되어 일차적으로 그것을 주도하고 말하는 기관 주체를 지표적으로 가리키고 이차적으로 그 기관 주체가 주로 백인 하올리라는 것을 근거로 하와이의 식민지 담론에서 말하는 토착문화와 전통을 파괴한 백인 권력계층을 도상적으로 떠올리도록 했다.⁵⁾ 지역 주민에게 지속가능한 농업과 에너지 생산, 그리고 환경관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글로벌 담론이 말하는 지속가능성을 다른 말로 대체하고 풀어서 설명하면 그들은 그것이 전통적 하와이 생활 방식과 세계관과 맞닿아 있다고 했고, 이미 순수혈통의 하와이 원주민에 의해 전승되고 있는 문화라 했다. 따라서 그들의 관점에서는 21세기에 들어서야 경제·사회·환경의 총체적 관리와 영속성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한다는 것이 한 정보제공자의 말을 빌리자면 “하올리의 관심사(*ahaole thing*)”일 뿐이었다.

이제 주된 언어가 영어인 하와이에서 “sustainability”라는 언어/기호가 어떻게 이처럼 문화특수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사용되는지 기호이데올로기 작용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⁶⁾ 앞서 실버스틴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의 중, 언어와 의미 간 지표 관계의 구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데올로기이고, 이데올로기를 내포하는 메타화용론적 담론은 언어의 뜻과 사용을 매개한다고 했다(cf. II 장). 메타화용론적 담론에 대한 논의를 본 연구에서는 메타기호학적, 즉 ‘기호에 관한’ 담론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그 이유

5) 여기서 일차적 이차적 구분을 한 것은 연구자와 주민 간 대화에서 대체적으로 시간상 표현된 의미작용을 구분한 것이며, 반드시 이 순서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6) 하와이는 영어가 주된 사용언어이고 하와이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알로하(*aloha*)와 같은 소수 하와이어만이 상징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된다.

는 여기에서 기호 사용에 영향을 주는 담론이 언어와 언어사용을 성찰하는 담론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사용자에게 의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호학적 요소를 내포하여 문화적인 기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담론이기 때문이다. 실버스틴의 설명을 응용하자면, 다양한 메타기호학적 담론, 예를 들어 ‘X 기호가 무엇이고 누가/어떻게/언제 사용한다’ 등의 내용을 함의하는 담론은 기호해석에 대한 방향성(orientation) 즉, 이데올로기를 단서로 제공하고 지표성을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메타기호적 담론은 기호가 특히 ‘누구/어떻게/언제’라는 대상적 의미와 관계를 맺는 데 매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 이데올로기의 기호와 사회 간 매개와 의미의 결정

그렇다면 21세기 초 하와이 현지인 사이에서 발견된 지속가능성이라는 기호는 그것이 재현하는 대상을 해석체가 속한 담론 공동체 성원이 공유하는 하와이 문화를 성찰하는 메타기호학적 담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림3은 기호-담론 간 관계를 도식으로 표현한 것이자 하와이에서 관찰된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둘러싼 문화적 차이가 어떻게 기호와 사회 층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

생하는지를 요약한다.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중립적 표상체는 사회의 층위에서 순환하는 두 주제의 담론과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적으로 유의미하고 가치판단적인 성격의 것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두 가지 담론은 다양한 사회적 지표(social indexicals)를 내포하는 공공영역 담론이고, 다양한 메타기호학적 요소와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기호 사용과 순환의 맥락에 제공함으로써 기호의 의미 관계와 해석을 결정하는 데 변증법적으로 관여하고 영향을 준다.

“문화적 세미오시스”라는 용어는 자연적(natural) 세미오시스와 구분되는 등, 기호학 연구에서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로프(Torop)는 기호학에서 문화를 분석하는 타 학문 분야와의 교류를 검토하면서, 켈카(Kelkar)의 경우, 문화적 세미오시스를 세미오시스의 민속학(ethnology of semiosis)과 연관시켰고 그것을 문화 ‘내’ 세미오시스(semiosis in culture)에 접근하는 문화적 기호학(cultural semiotics)과 구분했다고 지적했다(1999, 17). 연구자가 현재 기호인류학적 관점에서 생각하기에 이렇게 문화적 세미오시스를 세미오시스의 민속학과 연관시키는 것은 과거 기어츠(Geertz)의 상징인류학이나 구조주의적 신화연구가 문화를 상징체계로 바라보고 해석의 대상으로 접근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한다.⁷⁾ 현재 퍼스 기호학을 응용하는 기호인류학 연구가 문화적 세미오시스를 이야기할 때는 기호과정에 대한 민속학적 접근이라기보다 문화적 기호학을 경험적 근거를 통해 분석하기 위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것 또한 문화적 기호학이고 지금까지 기호와 문화적 담론의 관계를 구분하고 풀이한 것은 세미오시스가 사회적 상황 혹은 맥락과 결부해 어떻게 문화적이고 역동적인 의미와 해석을 가능토록 하는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7) 파멘티어(2016, 21-22)는 퍼스 기호학을 사용하는 현대 기호인류학의 발전에 기어츠의 영향은 거의 전무하다고 주장한다.

2. 기호 전환으로서의 번역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지주민의 부정적 반응에 관한 고민은 연구자가 지속가능성 교육연구소에서 이 년 간 참여관찰을 하는 동안 연구소의 운영위원회에서 계속됐다. 하와이 대학 지속가능성 교육연구소의 운영위원회는 하와이안 랜즈 기업의 담당 직원들과 대학 교직원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격주로 열린 회의에서 현지인의 반응을 이해하고 그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 참여를 유도할 방법을 고민했다.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하와이에서 나고 자란 카마아이나가 다수였고 백인 이주민 하올리도 있었지만 순수혈통의 하와이 원주민도 있었다.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사업을 논의할 때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적절한 언어와 비언어적 기호로 표현하는 가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들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회자하는 지속가능성 담론이 궁극적으로 전통적 하와이 세계관에 관한 담론과 유사하다고 믿었고 적절한 기호의 채택은 현지주민의 사업관련 반감을 완화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으나, 전지구적으로 회자되는 지속가능성 담론은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를 전체론(holistic)적으로 다룰 것을 이야기한다. 운영위원회의 고민은 예를 들어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어떻게 언어/비언어적으로 표현되어야 현지인으로부터 ‘외지’나 ‘남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미국식 산업자본주의’라는 의미가 아닌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전통적 하와이 경영방식’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가였다. 이 고민은 지속가능성의 해석을 규제하는 기호이데올로기를 담은 메타담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였다.

운영위원 중 특히 하와이 원주민이었던 위원들, 그리고 섬에서 하와이 지역 문화에 대한 권위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 다수 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교육연구소는 점차 그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유포하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교육적 설명과 이미지를 바꾸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흡사 마케팅의 작업과 비슷해서 연설문, 포스터, 영상 또는 뉴스 기사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토론하여 콘텐츠에 사용되는 언어나 다른 비언어적 기호를 더욱더 하와이 토착문화와 부합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점차 지속가능성에 관한 교육적 설명은 하나의 영어 단어에서 다른 대체어로, 또는 영어에서 하와이어로, 그리고 서구 특히 자본주의적 느낌을 주는 이미지에서 현지에 친숙한 과거와 현재 하와이 이미지로 소위 ‘번역’되었다.⁸⁾

그림4는 “조수(tides)를 변화하기”라는 지속가능성 교육연구소의 환경보호 홍보 동영상에서 몇 장면을 순차적으로 캡처한 이미지 조합이다. 이 동영상은 북태평양 한가운데,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사이에 플라스틱이 거대한 쓰레기섬을 이루고 있음을 설명하고 하와이 주변 생태계의 환경적 차원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 영상은 섬에서 열린 필름페스티벌에도 출품된 바 있다. 대략 이 분 정도 길이의 이 영상은 먼저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북태평양 플라스틱 섬으로 모인다는 것을 환경과학 이미지로 만들어 전달한다. 그 후, 여러 환경보호 활동가와 지속가능성 문제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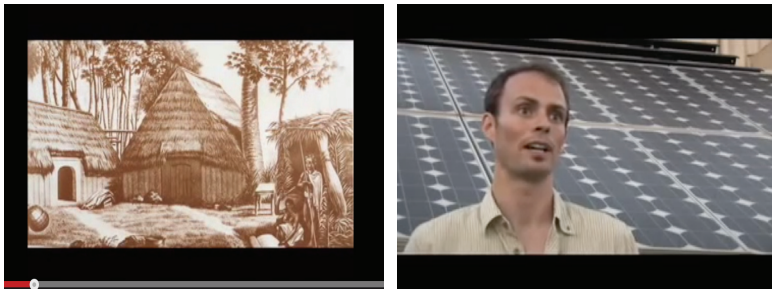
8) 연구자는 선행연구(Koh 2015a)에서 지속가능성의 대표적인 키워드 세 가지(“생태계,” “경제,” “사회문화와 가치”)가 하와이어로 대체되는 기호 차원에서의 변형(transformation)을 분석한 바 있다. 여기서 변형이란 실버스틴(Silverstein 2003)이 제시한 소스언어에서 타깃언어로의 ‘번역’이 보이는 세 가지 기호학적 유형 중 하나로, 그 연구가 밝힌 것은 언어기호 차원에서 영어에서 하와이어로의 변형이 의미 변형, 즉 기호가 가리키는 의미적 대상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라는 점이었다. 실버스틴(Silverstein 2003)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역이라고 말하는 과정이 퍼스 기호학 이론을 적용했을 때 사실 세 가지 유형의 의미변화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는 우리가 “언어의 개별 기호학적 구성요소 중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적인 요소들이 소위 ‘번역’에 있어 저마다 다른 민감성을 지니고 있음(recognize that those semiotic partials of language that are cultural in various complex ways indicate different susceptibilities of purported ‘translation’)”을 인식할 것을 주장했고, (a) 순수하게 문법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번역(translation)”과 (b) 지표관계의 맥락적 등가성이 유지되는 언어 “전환(transduction)”과 (c) 지표적 의미가 유지되지 않는 “변형(transformation)”을 분리해 생각해 볼 것을 권했다(ibid., 75). 본 논문, 특히 IV 장에서 다루는 기호-의미 관계의 변화는 이 중 전환이다. 기호가 가리키는 대상, 즉 지표적 의미가 불변하기 때문이다.

가라고 부를 수 있는 기관 주체가 순차적으로 등장해 플라스틱 더미의 문제점과 사람들이 가져야 할 환경인식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교육 연구소는 태평양의 플라스틱 쓰레기 섬 문제가 단순히 하와이 해변의 미관과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 문제를 통해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음을 설명하고 인간, 자연, 그리고 환경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유지되기 위해 사람들의 각성과 행동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려 했다.



[그림 4] 등장인물을 통한 지속가능성의 메타담론 변화와 의미 전환(transduction)

마지막 두 영상 캡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교육연구소와 단체에 속한 등장인물은 백인이고, 이 중 교육연구소에 소속된 젠(Jenn,가명)은 직장을 잡아 하와이로 이주한 경우였다. 이 두 명의 등장에 앞서 세 번째 캡처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하와이 어른(Hawaiian Kupuna)”이라고 자막으로 소개된 현지에서 문화 엘리트로 평가받는 사람이다. 쿠푸나(kūpuna)는 하와이어에서 조상을 의미하고 조부모와 어르신을 지시한다. 쿠푸나가 여러 등장 인사 중 가장 먼저 등장하고 이 하와이 쿠푸나의 목소리를 통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전지구적 반응을 요구하는 전지구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문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지주민의 이해와 평가가 고대 하와이 문화와 정신을 계승하는 쿠푸나의 담론을 통해 규제되고 메타기호학적으로 편제(metasemiotc regimentation)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려함이 엿보이는 장면이다.



[그림 5] 그림 삽입을 통한 지속가능성의 메타담론 변화와 의미 전환(transduction)

이와 유사하게 전통적 하와이에 대한 무엇(대상기호)을 떠올리도록 하는 다양한 비언어적 기호사용은 지속가능성 교육연구소의 여러 홍보물에서 발견된다. 그림5는 지속가능성 교육연구소 자체의 활동에 대한 홍보 영상인데, 여기서 등장하는 사탕수수를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풍력 에너지를 연구하는 공학자는 그의 연구와 연구소의 교육프로그램

이 고대 하와이 왕국의 세계관과 삶의 방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한다. 그가 지속가능성을 외지나 비현지인의 것이 아닌 하와이의 것으로 말로 설명하는 동안 왼쪽 그림이 등장한다.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담론을 문화적이고 지역적인 것으로 바꾸고, 지속가능성이라는 기호를 하와이에 적절한 것으로 번역하는 전환을 “메타기호학적 프레임”(Agha 2017, 348)을 바꿈으로써 하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본 논의는 미국 하와이주에서의 인류학적 현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지속가능성”이라는 기호가 어떻게 처음 현지인 사이에서 해석되고 있었으며, 그것의 의미가 어떻게 기호와 의미의 관계를 둘러싼 사회적으로 회자하는 메타담론과 연관되는지,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옹호하고 추진하는 기관 주체는 어떻게 현지인의 기호 해석을 메타담론의 변화를 통해 유도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실 퍼스 기호학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기호인류학 융합 연구는 퍼스의 원 관점에서 다소 벗어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구자가 본 연구를 통해 지적하고자 한 것은, 퍼스 기호학이 인류학적 사회문화 분석에 유용한 개념과 방법론적 도구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사회적 일상생활과 특히 실제 일상적 언어/기호사용의 연구에 일부 응용이 가능하고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가 퍼스 기호학을 기호인류학에서 발전된 개념과 융합하여 확장해 본 지점은 의미 관계와 해석에는 기호가 순환하는 기호사용 공동체 성원에게 친숙한 메타 층위 담론과의 상호작용이 관여한다는 것이다. 메타 층위의 담론은 의미 관계와 해석에 어떤 경향을 만들어주는 생산적이고 매개적 기능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이 기능이 가능하도록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그 메타담론에 함의된 기호이데올로기임을 설명하고 기호

이데올로기에 집중해 기호와 사회가 연결되며 특정한 문화적 세미오시스가 구성되는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기호와 사회의 역동적 상호작용 그리고 문화적 세미오시스는 인류학뿐 아니라 퍼스 기호학을 응용하는 여러 인문사회과학 연구에서 좀 더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특히 기호이데올로기 개념을 소개하고 기호이데올로기가 관여하는 문화적 세미오시스의 사례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퍼스 기호학이 주는 방법론적 장점을 드러내고 학문 간 융합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참고문헌

- 강윤희, 「주변화에 따른 전통기술장르의 변화와 언어이데올로기: 인도네시아 뽀팔랑안 부족의 사례」, 『한국문화인류학』 37:2, 한국문화인류학회, 2004, 23~48쪽.
- 최진숙, 「한국 사회 중년 남성의 전형화에 대한 언어인류학적 고찰: ‘아재 개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9:3, 한국문화인류학회, 2016, 57~93쪽.
- 파멘티어, 리처드, 『기호인류학 특강: 문화의 화용론적 기호학』, 고경난 역, 세미오시스 번역총서 04, 서울: HUiN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6.
- Agha, Asif, "Money Talk and Conduct from Cowries to Bitcoin", *Signs and Society* 5:2, 2017, pp.293~355.
- Coumans, Catherine, "Occupying Spaces Created by Conflict: Anthropologists, Development NGOs, Responsible Investment, and Mining", *Current Anthropology* 52:S3, 2011, pp.S29~S43.
- Janowitz, Naomi, "Ancient Ideologies of Ineffability and Their Echoes", *Signs and Society* 6:1, 2018, pp.45~63.
- Keane, Webb, "Semiotics and the Social Analysis of Material Things", *Language & Communication* 23:3-4, 2003, pp.409~25.
- _____, "On Semiotic Ideology", *Signs and Society* 6:1, 2018, pp.64~87.
- Kirsch, Stuart, "Sustainable Mining", *Dialectical Anthropology* 34:1, 2010, pp.87~93.
- Koh, Kyung-Nan, "Translating ‘Sustainability’ in Hawai ‘i: The Utility of Semiotic Transformation in the Transmission of Culture", *The Asia Pacific Journal of Anthropology* 16:1, 2015a, pp.55~73.
- _____, "How Brands (Don’t) Do Things: Corporate Branding as Practices of Imagining ‘Commens’", *Semiotica* 207, 2015b, pp.451~73.
- Nakassis, Constantine V., "Indexicality’s Ambivalent Ground", *Signs and Society* 6:1, 2018, pp.281~304.
- Parmentier, Richard J., *Signs in Society: Studies in Semiotic Anthropolog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 Parmentier, Richard J., & Greg Urban, eds., "Metasemiosis and Social Life: Essays in Honor of Michael Silverstein", *Signs and Society* 6:1, 2018.
- Partridge, Damani James, "Activist Capitalism and Supply-Chain Citizenship: Producing Ethical Regimes and Ready-to-Wear Clothes", *Current*

- Anthropology* 52:S3, 2011, pp.S97~S111.
- Rajak, Dinah, *In Good Company: An Anatom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1.
- Schieffelin, Bambi B., Kathryn A. Woolard, & Paul V. Kroskrity, eds., *Language Ideologies: Practice and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Singer, Milton, "For a Semiotic Anthropology", in *Sight, Sound, and Sense*, Thomas A. Sebeok, ed.,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8, pp.202~231.
- Silverstein, Michael, "Shifters, Linguistic Categories, and Cultural Description", in *Meaning in Anthropology*, Keith H. Basso & Henry A. Selby, eds.,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1976, pp.11~55.
- _____, "The Uses and Utility of Ideology: A Commentary", in *Language Ideologies: Practice and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123~45.
- _____, "Translation, Transduction, Transformation: Skating 'Glossando' on Thin Semiotic Ice", in *Translating Cultures: Perspectives on Translation and Anthropology*, Paula G. Rubel & Abraham Rosman, eds., Oxford: Berg, 2003, pp.75~105.
- Torop, Peeter, "Cultural Semiotics and Culture", *Sign Systems Studies* 27, 1999, pp.9-23.
- Welker, Marina A., "'Corporate Security Begins in the Community': Mining,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dustry, and Environmental Advocacy in Indonesia", *Cultural Anthropology* 24:1, 2009, pp.142~179.
- Williams, Raymond,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3[1976].
- Woolard, Kathryn A., & Bambi B. Schieffelin, "Language Ide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3, 1994, pp.55~82.

Semiotic ideology:

A case study of cultural translation and the
intersection of anthropology and semiotics

Koh, Kyung-Na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troduce semiotic ideology and to explore how empirical researches using this concept can help bridge anthropology and semiotics and shed light on their intersection(s). The concept of semiotic ideology builds upon the concept of language ideology. Language ideology is understood as the various ideas and beliefs people hold about language and language use and likewise, currently, semiotic ideology is used to discuss the ideas and beliefs people hold about signs and sign use. Using fieldwork data gathered ethnographically on the semiotic translation or transduction of the discourse of “sustainability” in Hawai‘i, this paper traces the linguistic anthropological development of the concept, analyzes how semiotic ideologies discursively mediate as well as orient indexical meaning-making and sensemaking, and argue that the concept helps to distinguish and thus associate the planes of sign and society. The concept of semiotic ideology helps to demystify the process whereby cultural semiosis occurs in relation to societ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scholarly dialogue and collaboration between semiotics and anthropology.

Keywords : semiotic ideology, semiotic anthropology, cultural semiosis, transduction, indexicality

투고일 : 2018. 05. 21. / 심사일 : 2018. 06. 08. / 심사완료일 : 2018. 06. 13.

